순천시, 기적의놀이터 3호 준공

유아부터 어른까지 함께 놀 수 있는 '시가모노'

디자이너 권터 벨치히와 우정의 선물 디자인

순천시가 세 번째 기적의놀이터 '시가모노'의 문을 열었다.

최근 열린 준공식에는 그동안 시가모노 놀이터의 최종 완성을 기다리던 5백여명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준공식에는 놀이터활동가와 함께 미꾸라지 잡기, 로봇과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 동산초등학교 어린이댄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3호 기적의 놀이터' 명칭인 '시가모노(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공모전에서 동산초등학교 6학년 배수환 학생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3호 시가모노 놀이터'가 기존의 1, 2호 놀이터와 다른점은 강청수변공원의 넓은 부지면적에서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놀 수 있도록 디자인된 놀이터라는 점이다.

짚라인, 다인그네, 그물놀이터 등이 들어섰고, 더운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

분수도 곁들여졌다.

특히, 3호 시가모노에 조성된 유아들을 위한 '밸런스바이크 장'은 독일의 세계적인 놀이터 디자이너인 권터 벨치히(Gunter Beltzig)와 국내 최고의 놀이터 디자이너인 편해문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함께 디자인한 작품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권터 벨치히(Gunter Beltzig)작가는 "그 동안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꾸준하게 조언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모험을 키워주는 기적의놀이터의 전파를 위해 힘써준 순천시에 '우정의 선물'로 밸런스바이크 장을 디자인했다"고 말했다.

총괄기획자 편해문 작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쁜 일상과 학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의 시간'을 허락하는 넉넉한 어른들의 마음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순천에서 최초로 만든 기적의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16년 1호 기적의놀이터 '엉뚱발뚱'과 2017년 2호 '작전을 시작하지'가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기적의놀이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많은 기관단체가 방문하였다.

한편 순천시는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2020년까지 총 10개의 기적의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4호 놀이터의 설계까지 마친 상태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 직접 꾸미는 '나만의 전시회' 공모

나주시는 시민이 직접 전시회를 열 수 있는 '나만의 전시회'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9일 나주시는 혁신도시 호수공원에 위치한 '빛가람 스마트미디어 스테이션'(이하 빛가람 스테이션)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나만의 전시회' 공모사업 신청자(단체)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와 한국콘텐츠진흥원, LH의 문화콘텐츠기반 융·복합 지역개발사업일환으로 지난 해 11월 개관한 빛가람 스테이션은 투명전광(LED)유리와 입체영상 구조물을 활용해 주간에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및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휴식공간으로 야간에는 시민 참여형 비디오 아트 무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 누구나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빛가람 스테이션 2층 전시실 공간을 무상 대여하고, 전시 홍보비(현수막, 팸플릿)를 지원한다.

작품 분야는 미술, 사진, 공예품 등의 통상적인 예술작품 뿐만 아니라, 개인 수집품, 소장품 등 폭넓은 전시 장르를 수렴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달 20일까지 나주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제출 서류를 구비, 시청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5회 화순고인돌문화축제 준비 '착착'

동아리 경연대회 예선 등 다채

제5회 화순고인돌문화축제를 앞두고 동아리경연대회 예선전이 열리는 등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고인돌축제추진위원회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참여형, 체험형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열리는 고인돌문화축제는 '청보리 물결 따라~ 고인돌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도곡면청년회에서 고인돌 주변 논에 청보리 10,000여평을 식재해 고인돌뿐만 아니라 청보리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해 그동안 고인돌로 한정된 축제 소재를 청보리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동아리 경연대회와 청소년장기자랑 대회 예선전이 8일 동구리 호수공원에서 열렸다.

꽃샘추위의 시샘에도 불구하고 화순관내 동아리팀 17팀(댄스, 악기연주, 부채춤, 민요 등)과 화순관내 초·중·고 청소년 장기자랑 19팀(태권도, 판소리, 중창, 댄스팀 등)이 참여해 열정적이고 불꽃 튀는 예선전이 치러졌다.

이 날 예선을 통과한 각각 12개팀은 제5회 화순고인돌문화축제의 본선 무대에 올라간다.

동아리팀 예선전에 참가한 이모씨는 "퇴직후 동아리팀에 가입해 취미생활로 악기연주를 시작했는데 화순고인돌문화축제의 무대에 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심사 위원으로 참석한 화순고인돌문화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예선전에 출전한 팀들이 실력이 워낙 출중하고 다양한 장르가 많아 12개팀만 본선에 선발하기에는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고인돌문화축제에는 21일 오후 4시부터 초대가수 남진이 '님과 함께' 등 히트곡을 부르고, 22일 오후 3시부터 '사랑의 밧줄'의 김용임이 출연해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일반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선정 총력

광양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30일과 4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위원회로부터 추진위원장(주민대표)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대면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해 이번 공모 사업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으로 봉강면, 다압면 2개 지구에 각각 40억 원을 신청했다.

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광양읍 본정마을, 옥룡면 남정·갈곡마을, 진상면 삼정마을, 진월면 대리마을에 각각 5억 원, 광양시 농촌역량강화 사업에 1억 원 등 총 7개 지구 106억 원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각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색깔 있는 발전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최종 선정은 4월말 결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될 예정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두루미 삶터 보전 위한 전국적 협력체계 구축

순천시는 2018 순천만 두루미 국제 심포지엄을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와 순천만 습지 일원에서 국내외 두루미 생태 전문가, 학계전문가, 전국 시민단체 활동가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순천시와 순천만습지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사)한국조류학회, 국제두루미재단,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에서 후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동아시아 두루미류 서식지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두루미류 집중화에 따른 서식지 분산과 현명한 AI 공동대응을 위해 기획되었고, 국제두루미재단-순천시-철원군-고양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두루미재단 스파이크 밀링턴 부회장은 전세계 두루미류 보전을 위한 한반도 서식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두루미네트워크 이기섭이사장이 한반도 두루미류 분포 상황과 집중화 문제를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기정떡' 증명표장 등록으로 명성 지키기

6월까지 특허청에 출원 추진

광양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양기정떡'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증명표장 등록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난 3월부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권리화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기초환경 조사와 광양기정떡 생산자 현황, 품질특성 조사, 인증마크 개발 등을 해왔다.

지난 6일에는 기정떡 생산자와 관련분야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권리화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예상문제점 논의와 향후 추진 과정 등을 협의했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란 지역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되어 품질기준을 규정해 지역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광양시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호 제도로, 관광객과 시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오는 6월 중 특허청에 '광양기정떡'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등록할 예정이다.

또 특허청으로부터 증명표장 출원 등록이 처리되면 현재 운영 중인 57개소 떡방앗간을 대상으로 2019년에 증명표장 사용자를 선정해 포장디자인비 지원과 품질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